

에스닉 코스튬 10주차

핵심 개념

- 유럽 여성의 민족 의상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와 다른 민족과 차별화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 일반적인 구성 요소 - 여성은 슈미즈, 스커트, 에이프런 / 남성은 바지, 벨트, 셔츠의 기본형.
다른 민족과 차별화 되는 요소 :
 - 전체적으로 의복의 장식적인 요소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텔레마크에서는 보디스에 바로크적 아칸서스 앞사귀를 자주 수놓지만 프랑스의 브르타뉴에서는 보디스에 켈트족의 기원을 상징하는 실크 브레이드 장식을 한다. 헝가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오픈워크 스티치 등의 장식요소도 민족간의 차이점.
 - 모자에 차이가 있다. (집안마다 특색있게 달랐음)
프랑스 브르타뉴에서는 코이프를 착용한다. 노르웨이 호르달란에서는 스카우트라는 자수장식이 된 천을 두른다. 헝가리의 부야크에서는 머리에 스카프나 캡, 실크 소재의 머리 수건을 두른다. (헝가리에서는 주로 스카프를 두른다)
헝가리 호르토바지에서는 챙이 넓은 펠트모
 - 기온의 영향으로 옷의 색감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프랑스 프로방스의 파스텔 색조가 그 예.
 - 슈미즈, 블라우스, 치마, 에이프런 둘러주는 것. 머리 쓰개를 함. ⇒ 던들 스타일
- 동유럽과 서유럽의 자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동유럽에서는 여신 모티프를 많이 사용, 그게 변형돼서 생명의 나무가 되었고 그 주변에 동식물을 다시 배치함.
 - 서유럽은 전통적이기 보다는 유행, 교역에서 의복 문화가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장식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동유럽은 다산의 모신, 동식물 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신화적인 상징물들을 주로 사용했다.

전시(공연) 관람 발표

<르메르 2024 SS 컬렉션 사진 작업, 한남동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전>

베트남 여행에서 영감을 받았어 르메르 같이일하는사람이 베트남계 프랑스인.

베트남 컨셉으로 선보인 옷들이 도전적(별로였나봐)이었음. 특이한 염색, 개더 디테일, 헬멧+두건 매칭, 오토바이까지. 르메르 이미지와는 좀 달랐다. 색감도 아이보리/브라운계열을 주로 쓰던 것과 달리 오렌지, 노랑, 청색 등 튀는 색을 썼다.

사진 배치가 별로다. 판넬에 붙어서 다닥다닥 모여있는게 별로였음.

베트남에서 본 이미지를 예쁘게 포장,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듯 했다.

<숙명여대 정영양 자수박물관>

중국 황제, 일본 에도시대 여성의복 위주로 관람.

일본의 후리소데, 우치카케 관람. 홀치기, 수묵화 등 다양한 표현방식 사용. 중국보다 과한 디테일을 덜어낸 느낌.

중국만큼 권위적인 강조는 덜하지만 여백의 미도 있고 나름의 품위가 있었다.

정성스러운 자수 문화가 대를 이어 전달되며 연대에 기여.

<이화여대 원삼 전시>

왕가의 것 보다 작게 만들었지만 민가에서 색동을 더 많이 넣었다. 금박같은걸 못넣으니 색동을 추가한 것.

이런 다른 국가의 복식을 보는 것으로 문화교류를 체험 할 수 있었다.

<자수 꽃이 피다>,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 <서울공예박물관 보이는 수장고>

직물의 보관 방식에 놀랐다. 화학처리, 세탁, 염색 등. 앙드레김 수트 등 현대적인 옷도 보관하고 있어서 의외였다.

토론 문제

- 킬트의 초기 형태는 어떤 것이었으며, 다양한 패턴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 킬트는 어깨 걸이를 착용하는 특정한 방식이었다.
"허리께에서 접어 포개고 매어,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짧은 페티코트같이 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깨 위로 매어 고정한 것이다." → 이것을 노동자들이 입기 편한 방식으로 개량, 즉 길이를 줄여서 만든 것이 짧은 킬트이다. 어깨걸이로부터 치마 부분을 분리해 그것을 미리 주름이 꿰매어진 별개의 옷가지로 대체한 것.

- 다양한 패턴은 개인적인 취향 또는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원래 패턴이 아닌 전투모에 부착한 장식으로 씨족을 구별했다.
교지대 연대들이 킬트를 군복으로 입으면서 씨족별로 구분되는 격자무늬라는 개념이 탄생했을 것이다. 전쟁의 필요에 따라 연대의 수가 증가하면서 격자무늬 군복도 구분되기 시작했고, 낭만주의 운동이 씨족 숭배를 부추김으로써 이러한 구분의 원칙이 연대에서 씨족으로 전이 되었다.

⇒ 스코틀랜드 왕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족장들을 구분해서 보이기 위해서 부족별로 다른 체크 무늬를 부여함. 원단 업체에서 체크무늬 만들어서 부족들에게 유통함.

- 전통이 형성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인위적으로 조작된 복식 문화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관습이나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전통이 된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복식 문화라 하더라도 그러한 조작에 의해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오랜 기간, 충분히 반복되었다면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압제적으로 특정 복식을 입게 하고, 그 정권의 영향으로 수 세기 동안 그 옷이 자연스럽게 생활복으로 입어졌다면 그 복식은 전통이 될 것이다.

- 비비안웨스트우드가 타탄체크 만들어서 씨족으로 이름까지 붙여서 등록함.
- 하일랜드 인들이 아일랜드 문화를 카피, 위조해서 문화를 알림. 이렇게 전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로우랜드에까지 소개.
- 짧은 치마 형태는 18세기 이후 알려짐.
-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되고 20년 뒤 켈트(quelt)라는 명칭 등장.
- 1727년 토마스 로린슨이 하일랜드들을 고용해서 임대, 벌채 및 용광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때 혁대로 맨 어깨걸이가 거추장스러웠음. 로린슨은 재봉사를 불러 어깨에서 치마 부분만 분리하여 노동에 편리한 옷으로 제작.
- 킬트가 유행한 이유
 - 낭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의 대상에게 바치는 예찬. (선민의식 비롯)
 - 영국 정부에 대항하는 의미로 착용

- 윌리엄 윌슨 앤 선 : 씨족별 격자무늬 천 목록 제작, 씨족 간의 경쟁에서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하일랜드 협회와 동맹 체결. 국왕의 방문에 앞서 샘플을 런던으로 보냈고 협회는 그것을 각 씨족 특유의 문양으로 인증.

너무 잘 팔려나가서 생산량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음.

→ 하일랜드의 작은 문화 + 전통의 필요성이 만들어냈다.